

마을 수호신 '언덕 위의 꽃돌'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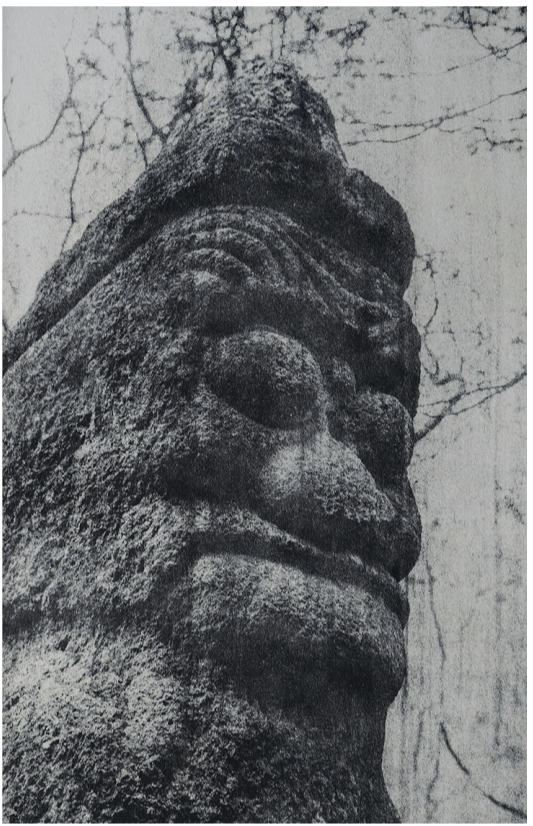
마애불, 미륵, 석장승, 집대(솓대) 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바위'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예로부터 솓대와 장승, 벽수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사시사철 마을 초입 또는 대문 앞을 지키며 액운을 물리치고 수문장 역할을 해왔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장승과 솓대 등 사진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특히 석장승, 벽수, 미륵과 마애 불상 등 전남에 분포된 200여점 중 160여점이 첫선을 보인다. 어수선한 시국, 바위 문화재들이 전하는 복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이백그라운드(대표 이당금)에서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김주영 김오일 사진전이 그것. (전시 오프닝은 1일 오후 3시).

'한국의 바위문화_전라남도'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광주를 비롯해 전남에 있는 바위문화재를 다채롭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번 작품은 김오일 방식으로 구현됐다. '1855년 프랑스의 알퐁스 포아트뱅(Alphonse Poitevin)이 발견한 회화주의 사진의 주된 기법'이다. 또한 김오일 프린트는 '1989년 미국 칼 쾨니히(Karl Koenig)에 의해 발견된 동시대 회화주의 대안 프린트'이기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쌍계사지 석장승

마애불·석장승·솓대 등 160여점 김주영 작가 김오일 기법 사진전 '한국의 바위문화_전라남도' 주제 2월 1~28일 예술이백그라운드

도 하다. 사진작가 김주영은 지난 1986년 경희대 건축과를 졸업했다. 어린 시절 예술가의 꿈을 좇아 그는 2009년부터 뒤늦게 사진공부를 시작했다.

그가 바위에 대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어떤 이로부터 사진집 한 권을 받고서였다. 그에 따르면 "사진집에는 거칠지만 정겹고, 익살스럽지만 해학이 가득한 우리나라의 벽수와 장승들로 가득했다"며 "그 사진집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어느 날 궁금중이 일었다"고 전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사진집에서 봤던 장승과 벽수들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지 마을을 지키고 민초들의 슬픔을 달래 주던 소망의 등불이자 지킴이였던 그들은 무탈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부터 8년간 전국의 벽수와 장승, 마애불과 미륵불 등을 찾았다. 촬영한 작품은 김오일 방식으로 인화해 이번에 관객들을 만난다. 작품의 사진 크기는 모두 A3 크기(27x40.5cm).

김 작가는 "지정 문화재는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보존이 잘 안 된 비지정 문화재나 민속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지반도 틀린 데다 인구 소멸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경우는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영암 아천리 미륵 굴 미륵 같은 경우가 그러한 예다. 폐가 뒷마당에 있어 출입구가 봉쇄돼 있거나 덩불과 쓰레기 더미가 대문 앞을 막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모든 작품이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진도군 근대면 덕병리 '진산퇴들'에 있는 한 쌍의 바위 장승은 기억에 남는다. 남성상 240cm, 여성상 220cm 높이로 '진제'라는 명문이 몸체에 각인돼 있다.

두 장승은 지난 1989년 도난을 당했다.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해 1993년 새로 조성했다. 사진은 새로 조성된 것으로 이번 전시는 가치 공유는 물론 문화재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대장군'과 '진제'라는 명문이 새겨진 장승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도 있다.

김 작가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민초들의 민초들이



광주 북구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심신사지 미륵불

품을 달래주던 소망의 등불이었던 문화재를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차례"라며 "어떤 거창한 행동보다도 조용히 바라보며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답했다.

그는 정호(程顥)의 시 '추일우상(秋日偶成)'에서 서도 곳곳이 자리를 지키며 민초들의 아픔과 소망을 모두 아울러온 바위 문화를 통해 오늘의 우리가 지켜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사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당금 대표는 "이번 전시는 오랜 세월 마을 어귀나 산속 수풀, 산꼭대기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미륵과 벽수, 장승, 마애, 솓대 등 '언덕 위의 꽃돌'을 볼 수 있는 자리"라며 "시간이라는 풍화 속에 서도 곳곳이 자리를 지키며 민초들의 아픔과 소망을 모두 아울러온 바위 문화를 통해 오늘의 우리가 지켜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사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라리넷 감성... 축제같은 공연

광주클라리넷앙상블 'CLARINET FEST'... 2월 2일 ACC



지난 연주회 당시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광주클라리넷앙상블 단원들. <에나엔터테인먼트 제공>

클래식부터 현대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클라리넷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공연이 열린다. 국내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송호선 클라리넷리스트를 초청, 지역 클래식음악 애호가들을 만나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클라리넷앙상블(단장 정진용)이 제4회 정기연주회 'CLARINET FEST'를 오는 2월 2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극장 2)에서 펼친다.

프란츠 폰 주페의 'Poet and Peasant' 서곡을 시작으로 프란츠 단지 '콘체르투스튀크 2번 g-moll', 야가사와 사토시 'Crescitta' 등 명곡들이 울려 퍼진다.

이어 멘델스존 '카프리치오 Op.81', 미셸 망가니 '자유의 영혼'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가 조지 거슈윈의 '거슈윈 in 클라리넷'도 레퍼토리에 있다.

협연하는 송호선은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비롯해 독일 뮌헨음대, 스위스 바젤음대를 졸업했다. 현재 앙상블 Diapason 리더이며

추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정진용 단장은 광주시향 객원수석 등을 역임, 현재 광주 윈드오케스트라 악장과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 외에도 전남대 출신 장민지, 박효인, 김혜화, 이다운 플루티스트를 비롯해 김누리(피커션), 염찬미(더블베이스)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2018년 지역 클라리넷 주자들이 모여 창단한 광주클라리넷앙상블은 4중주-10중주까지 다양한 편성으로 재즈, 탱고 등 장르를 허물고 있다.

정진용 단장은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클라리넷리스트들로 구성된 '광주 클라리넷 앙상블'이 어느덧 제4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며 "클라리넷으로 채워 나가는 축제 같은 공연으로 관객들께 2025년 새해 선물 같은 밝은 분위기를 선사하고 싶다"고 했다.

전석 무료.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국가유산, 책으로 탐구

문화의숲도서관 '겨울 독서교실'... 2월 5~7일 서구문화센터

광주에 깃든 '의향 정신'을 책을 통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독서 심화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문화의숲도서관이 '2025년 전국 도서관 겨울 독서교실'을 오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전 9시 30분 서구문화센터 꿈나무실(1층)에서 운영한다.

3일에 걸쳐 '나만의 광주 국가유산 이야기'라는 테마로 진행하며 초등 3-6학년생을 대상(15명)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는 5일에는 '광주의 국가 유산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깃발 BOOK 만들기' 등을 실시한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소장 중인 국가유산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6일에는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이야기하는 '천연기념물이란?'을 비롯해 '칠석 고싸움놀이', '나만의 무형문화재' 등 체험활동이 예정돼 있다.

끝으로 7일에는 '월봉서원의 선비들', '5·18 민주화운동 기록', '시민군에게 보내는 편지' 등 광주 5월과 선비정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필기도구와 싸인펜, 가위, 풀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전에 국가유산 포털을 활용해 무등산, 5·18 사적지, 석탑 등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본 뒤 참여하면 도



국가무형문화재인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 <광주일보 자료>

움이 된다. 문화의숲도서관 도서관팀 이한주 담당은 "방학 기간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광주의 다양한 국가유산을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지역 학생들이 책과 연계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광주를 깊게 알아가고,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유선 신청.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설 연휴 고려인마을서 한글 서예 퍼포먼스

한창환 서예가, 아동·청소년 대상 붓글씨 선보여

우리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기록물 형태로 전승돼 왔다. 문학작품을 비롯해 서간문, 특히 민속과 음식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활용 및 연구돼 왔다. 오늘날에는 미디어아트 등 타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예술로 변모 확장되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글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열려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예가 한창환 씨가 최근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붓글씨를 선보였다. 지구학당대표이자 미래한글연구가인 한 작가는 대학,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와 연계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알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인마을 산하 청소년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이용 고려인자녀 약 70여 명이 참여했다.

한창환 서예가는 이날 퍼포먼스에서 몸소 시연과 함께 한글에 담긴 역사적 내력과 인문학적 의미 등을 이야기했다. 참여 학생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깃든 서예의 정신과 예술의 즐거움을 체험했다.

한 서예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고려인마을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글 서예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이 한글 서예는 물론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한민족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현 지역아동센터장은 "한창환 작가님의



한창환 서예가가 최근 광주 고려인마을서 붓글씨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고려인마을 제공>

한글 서예 퍼포먼스를 매개로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고려인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